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로맨스

내일 고창문화의전당서 새봄맞이 오페라 '춘향전' 공연

한국 최초의 창작오페라인 '춘향전'이 한반도 첫 수도 고창군민과 만난다. 5일 고창군에 따르면 오는 7일 저녁 7시30분 고창문화의전당에서 한국최초의 창작오페라인 '춘향전'이 공연된다. 오페라 '춘향전'은 전체 5막으로 구성돼 있으며 권력 앞에서 흔들림 없는 춘향의 순정과 지조와 절개, 춘향을 사랑하는 도령,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로맨스와 화려하고 풍성한 우리 춤과 가락으로 공연의 재미와 감동을 선사 할 계획이다. 오페라 전문공연 단체 '오페라 마당'의 주관으로 이뤄지는 이번 공연은 춘향과 도령이 부르는 이중창 '사랑가'와 춘향이 부르는 '옥중가' 등 주옥같은 아리아가 새봄맞이 감성을 적신다. 또 방자와 향단 그리고 월매가 펼쳐지는 개성 있는 감초 연기를 선보인다.

공연의 연출·지휘는 유희문 예술감독이 맡게 된다. 춘향 역 소프라노 김지현, 도령 역 테너 이정원, 월매 역 메조 소프라노 이우순, 방자 역 테너 송원석, 향단 역 소프라노 이슬비, 사또 역 바리톤 김관현 등이 출연하고, 음악감독 김효정, 무용 원미자 한국무용단, 반주 코리아나 클래식, 합창 마에스타 오페라 합창단 등이 제작에 참여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오페라 '춘향전'은 한국 오페라의 효시를 이루며 오페라 붐을 일으키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며 "전통의상과 전통춤, 풍자와 해학 등 한국적 가치관과 풍경이 서구적 형식과 조화롭게 융화돼 있어 한국 오페라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며 많은 관람과 참여를 당부했다. 공연관람은 고창문화의전당 홈페이지와 현장예매를 통해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축제로 도약 할 것”

전주소리축제 조직위원장에 JB금융지주 김한 회장 3연임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이 (재)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으로 3연임됐다. 전주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김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다음달 6일부터 3년간이다.



그는 지난 2011년 중도 사퇴한 김명곤 전 조직위원장의 잔여 임기에 이어 2013년부터 6년간 위원장을 맡아 소리축제의 경영과 조직 안정화를 위해 힘썼다. 김 위원장은 국악과 지역 미술에 대한 관심과 조예가 깊고 전북은행을 JB금융지주로 발전시킨 경영자로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소통, 새로운 내부 변화 등에서 소리축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두 번째 임기에 이은 이번 연임은 조직 내부는 물론 전북도, 지역 문화계에 누가 될까 깊이 고심하고 망설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소리축제가 안정과 성장이라는 반석 위에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으로서 지역 문화계를 선도하고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축제로 도약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이달 말에 개최될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총회를 통해 최종 의결 절차를 밟아 김 위원장의 임기 연장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서울대와 미국 예일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대신증권 상무이사, 메리츠증권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JB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뉴시스



무주산골영화제가 일곱 번째 영화제를 함께 이끌어갈 기업 파트너 및 문화예술 기부 기업을 모집한다.

“초여름 낭만 영화제 우리 함께 만들어요”

무주산골영화제, 기업 파트너·문화예술 기부 기업 모집... 다양한 홍보 혜택

초여름 속에서 영화를 이야기하는 낭만 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가 일곱 번째 영화제를 함께 이끌어갈 기업 파트너 및 문화예술 기부 기업을 모집한다. 2013년부터 시작된 무주산골영화제는 엄선된 국내외 다양성 영화로 구성된 특색있는 영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매년 약 2만 5천여명 내외의 관객이 안정적으로 찾는, 자칫만 특별한 영화제로 성장해왔다. 특히 지난 2년간

은 차별화된 문화 프로그램을 안착시켜 영화와 여가를 중시하는 20~30대 관객과 캠핑을 즐기는 가족 단위 관객들로부터 영화를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의 문화 축제로도 호평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문화혜를 통해 폭넓은 소비자를 만나고자 하는 기업들의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무주산골영화제의 기업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형식은 현금 또는 현물 후원이며 한국문

화예술위원회를 통한 지정 기부도 가능하다. 참여 기업에게는 영화제 기간 중 브랜드 영상 노출, 홍보물을 통한 광고 및 CI 노출, 영화제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한 브랜드 노출 및 이벤트 진행 등 다양한 기업 홍보 혜택이 주어진다. 모집 기간은 4월 25일까지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산골영화제 공식 홈페이지(www.mjff.or.kr)를 참고하거나 사무국 사업마케팅팀(전화 063-220-8253 / 이메일 mujufilmfest@naver.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무주군 일원에서 열리며 영화제 관객들과 함께 문화로 소통할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무주=전문선 기자

‘박물관 활성화’로 지역 문화서비스 늘린다

전주대, 박물관 지원사업 3개 부문 선정

전주대 박물관(관장 홍성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사)한국박물관협회가 진행하는 ‘박물관 지원사업’에서 총 3개 사업 부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대는 올봄부터 전문인력 지원사업인 학예인력 지원사업과 교육인력 지원사업, 체험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박물관을 문화로 활성화하고, 다양한 체험교육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전주대는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도 6년째 선정되며 그 동안의 성과도 함께 인정

받았다.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청소년 인문·체험 프로그램으로 ‘문화재 발굴 체험’, ‘민화부채 만들기’, ‘예코백 만들기’, ‘인장(印章) 만들기’ 등 다양한 과정이 운영된다. 전주대 박물관 박현수 학예연구사는 “많은 청소년들이 박물관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에 흥미를 느끼고, 진로선택에도 도움 받고 있다”며, “박물관이 지역사회의 중심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박물관은 2014년부터 다양한 국고 지원사업·전시·교육·조사연구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초·중·고등학생, 다문화 및 소외계층에게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박물관이 문체부가 주관하는 박물관 지원사업에서 총 3개 사업 부문에 선정됐다.

광화루 600년

남원의 봄

風引春香

봄 인 춘 향 바람결에 봄향이 나는구나

요천면 벚꽃 4월 초 / 제25회 지리산 아래봉 철쭉제 4월 중순 ~ 5월 중순 / 제89회 춘향제 5월 8일 ~ 12일

요천면 벚꽃도 단산스

지리산 아래봉 철쭉

사람의 향기 춘향제

관악부의 봄